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15

##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 윤리적 문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성인과 아동 사이에 나타나는 비수평적인 모습은 낯선 성인과 함께 하는 개별 인터뷰에서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덜 나타난다.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덜 경직돼 연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포커스 그룹 토론이나 인터뷰에서 그렇듯, 힘들었던 경험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표현돼 참여하는 아동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보호·권위, 체벌, 학대와 방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본 연구의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의 아동과 보호 및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나, 경우에 따라 아동은 학대, 방치와 같은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주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그러한 경험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그동안 숨겨왔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키로 작용하는 셈이다.

각 참가자에게 연구 주제가 가질 수 있는 민감성과 더불어, 이 토론은 참가자들 간의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토론 중에 몇몇 아동들은 심각한 체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아동들은 매우 놀라며 “그건 아동 학대야!”라고 반응했다. 이러한 정보가 아동 간의 관계를 바꿔 놓았을까?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두 기밀 유지가 보장됨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다.

### 선택방법:

연구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아동 참가자에게 최대한 위험이 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모든 참가 학교는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를 받았다. 이 브로슈어는 국제적인 연구(아동 학대나 방치에 대한 설문지 개발)와 보호, 권위, 체벌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조사한 질적 연구를 소개했다. 브로슈어는 연구 과정을 안내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도 담았다.
- 각 교실에서 선별된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은 뒤 브로슈어와 동의서를 제공받았다.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브로슈어를 읽어보도록 요청했고, 참여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 학생들은 브로슈어에서 연구 목적, 연구팀 소개, 아동의 권리(기밀 유지, 익명성,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읽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지 환경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현지 사회복지사의 이름도 포함했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연구팀은 아동들이 꺼내는 이야기 주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참가자들이 가진 전문성과 연구의 초점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보호와 권위에 대한 아동의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 포커스 그룹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연구팀은 질문을 하기 위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포스터를 활용했다. 연구자가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이용해 “아동을 돌볼 때 사람들은 뭐해?”와 같은 질문을 아동에게 던졌다.

아동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초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내용의 기밀 유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기밀 유지 조항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참가자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룹 토론에서는 ‘침묵상자’가 방에 놓여졌다. 아동들은 편지봉투와 종이 몇 장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종이에 적어 박스 안에 넣었다. 그 내용은 매우 어렵거나 사적인 것일 수 있고,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또, 참가자들이 깜빡 잊고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덜 신비스럽게 비춰지도록, 연구팀은 그룹 토론 후 교실로 돌아간 참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룹 토론에 대해 덜 궁금하게 하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질문하지 않게 됐다.

###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 아동에게 논의된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에서 민감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자료제공:** Hilde Lauwers, Research Centre Childhood & Society, Brussels (Belgium)

### 사례연구 5: 우간다의 아동 연구자에 대한 포용과 대표성의 문제

#### 연구배경: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네팔, 우간다에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대한 주제별 평가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각 나라의 Child Clubs·Peace Clubs와 협력해 청소년들은 전문가, 동료 연구자, 활발한 응답자, 문서작성자, 옹호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연구팀이 함께 ‘연구단’과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연구단(때로는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식, 자신감 및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간다에서 열린 ‘Start up’ 워크숍은 여러 나라의 아동 및 성인 연구팀을 한 데 모았으며,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역량 강화 및 성찰 워크숍이 개최됐다.

### 윤리적 문제:

우간다에서는 4명의 아동 대표(남 2, 여 2)가 스타트업 워크숍에 참여했다. 우간다에서 성인-아동 연구단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 겪은 윤리적 문제는 어떠한 아동이 해당 구성의 일원이 되고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인지에서부터 발생했다. 국가 소속 연구자들(성인)이 참석한 Peace Club 회의에서 아동들은 지난 워크숍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다음 워크숍에도 참석하는지 물었다. 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은 “만약 똑같은 멤버가 계속해서 워크숍에 참석한다면 우리가 이 클럽의 구성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성의 문제는 주제별 평가 과정에 참여한 거의 모든 클럽과 단체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포용과 대표성 그리고 참여에 관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욱 폭넓은 의견 공유와 토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가상 관심대상 그룹 모임에서도 이 윤리적 문제를 다뤘다. 해당 모임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의 자문위원, 글로벌 연구자, 대표 연구자, 각 참가국의 세이브더칠드런 포컬 포인트를 불러모아 월례 화상회의를 통해 윤리적 관례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했다.

### 선택방법:

우간다 내의 여러 Peace Club 및 아동 단체와 자문회의를 거쳐, 보다 많은 숫자의 남녀 아동들이 연구와 평가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설문조사 워크숍에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 포용적 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결정은 모든 클럽 및 단체들과 공유됐다. 이후부터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이 마련돼 주제별 평가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아동과 청소년을 선발하는 기준이 됐다.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잘 진행될 수 있었는가:

- 민주 선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아동 및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아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집단을 대표한다.
-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참여: 아동 및 청소년은 모든 참여 과정이 포용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모든 연령대, 민족·부족적 배경, 역량(장애를 가진 아동 포함), 교육 수준에서 동등한 숫자의 남녀 아동을 선발한다.
- 또래 집단 내의 공유와 학습: 선출된 아동 및 청소년은 클럽이나 단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을 통해 우간다 북부에서 시행된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에 603명(여 225, 남 378)의 아동 및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은 10-14세였으며, 일부는 10대 후반이거나 20세 정도였다. 참가자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남녀 학생, 장애 아동, 과거 유괴당했던 어린이, 미혼모, 고아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많은 아동은 난민 캠프에서 생활했다. 해당 아동과 청소년은 “워크숍이나 트레이닝에 참석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게 그곳에서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소개했다”고 보고했다(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하지만 자문 위원회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Peace Club과 단체 구성원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적은 수의 학생만을 선출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24명(여 12, 남 12)을 뽑아 6명의 성인(연구자, 보건교사 및 후원자 대표, 조력자, 지역 NGO와 세이브더칠드런 대표, 지역 당국의 담당자)과 함께 자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자문 위원회는 석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안건을 발의 및 논의하고 분석했으며, Peace Club과 아동 단체에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참여 연구 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포용적이고 순환적인 대표 체계를 촉진하고, 적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기 보다는 많은 수의 청소년이 연구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표 선출에 있어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할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과 청소년 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정보의 투명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참고문헌

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National Report – Uganda – Children’s participation in armed conflict, post conflict and peace building.

**자료제공:** Clare Feinstein and Claire O’Kane. This is a more detailed version of a case example that was included in Save the Children Norway (2008) Ethical Guidelines for ethical, meaningful and inclusive children’s participation in participation practice. We also extend appreciation to Dr. Kato Nkimba for his contributions in developing this case example from Uganda.

---

### 사례연구 6: 폭력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아동 인터뷰: 아동 폭력에 관한 조사 도구와 과정이 13-17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가?

---

### 연구배경:

많은 나라에서 아동의 정서적·신체적·성폭력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의 철저한 지휘 감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는 Together for Girls라는 국제적 민간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